

다니엘 K. 다르코 박사, 루가 복음, 2차 세션 , 서론, 2부, 루가의 문학 예술성

© 2024 댄 다르코(Dan Darko)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서론, 2부, 루가의 문학 예술입니다.

루가 복음 연구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복음서의 서론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살펴봅니다. 저자와 수신자의 문제를 살펴보고, 루크의 세계를 조금 살펴보고, 유대교와 같은 종교적 전통을 살펴보고, 루크 복음서를 이해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방법을 살펴봅니다. 여기서는 루크와 그가 여전히 서론의 일부로 복음서를 쓰는 방식에 대한 몇 가지 핵심 사항을 빠르게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주로 문학적 예술성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발견되는 공통 주제 중 일부에 초점을 맞춥니다. 누가는 복음서 서문에서 1절에서 4절까지 기록하고,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들을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종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대로 기록하려고 했습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나 자신이 처음부터 모든 것을 주의 깊게 조사했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데오필로스에게 순서대로 기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당신이 배운 것들의 확실성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누가의 글 두 번째 권이 어떻게 소개되었는지 살펴보실 수 있도록 슬라이드를 올렸는데, 같은 수신자, 테오필로스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돌아와서 누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서 성취된 일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한때 전해진 적이 있고, 성취될 약속이나 성취될 예언이 있었다고 말하듯이. 그것들은 우리에게 전해졌다고 누가는 말하며, 그는 예수와 직접 접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가 기록한 전통은 그들에게 전해지고 이 상황에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전해졌지만, 그의 출처는 신뢰할 만했습니다.

그는 목격자들이 있었고 말씀의 종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누가가 복음을 말씀으로 묘사하는 방식을 관찰하는 것은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출처는 원래 출처에 매우 익숙합니다. 그는 이것을 염두에 두고 자신도 신중하게 조사하고, 연구를 했으며, 자신이 쓰는 내용이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기 위해 세심하고 명확하도록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화가 지시하는 그의 언급에서 그는 눈물겨운 상실을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를 올바르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를 각하라고 부르는데, 원한다면,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남부에 있을 때, 모든 사람에게 정중하게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오, 하지만 영국에서 우리가 'sir' 라고 말할 때, 그것은 실제로 'sir', 가장 훌륭한 것을 의미합니다. 눈물 어린 상실은 'sir'의 개념과 동일했습니다. 그는 참으로 매우 중요한 사람이었고, 루크는 그가 배운 것들의 확실성을 알 수 있도록 이것을 썼습니다.

누가가 자신의 출처를 어떻게 설명하는지에 대한 관찰. 그의 자료 출처, 그가 이 몇 구절에서 쓸 설명의 출처를 그는 그것을 기록된 설명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는 처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먼저 갔고, 그는 그들에게서도 인용합니다. 둘째, 그의 출처에는 목격자가 포함됩니다. 그는 개인적인 주장을 하지 않지만 신뢰할 수 있는 주장을 합니다.

셋째, 그는 잘 교육받은 사람으로서 자신의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자신이 수집한 자료를 주의 깊게 조사하고 수집한 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저는 세 번째 부분에 대한 루크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게 괴짜스러운 부분입니다. 그게 제 세상입니다. 하지만 질서 있는 기록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누가는 질서 있는 기록이란 실제로 사건이 전개되는 대로 연대순으로 배열된 것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는 질서 있는 기록이란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논리적이고 정확하고, 원한다면 명쾌한 기록을 제공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가 언급하는 것이 연대순 정확성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전에, 고대 작가들은 일반적으로 개인의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연대순으로 특정 기록을 제시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세요.

때때로, 그들은 그 사람의 영웅심으로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줄거리와 줄거리 해결을 어떻게 전개하고 싶은지에 따라 특정 사건을 중간에 두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루크는 그가 연대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실제로 사건의 논리적이고 명쾌한 표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루크의 다른 출처의 경우, 서면 출처의 측면에서, 우리는 신약학에서, 신약 101을 수강한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출처 비판이라는 입에 발린 것입니다. 이제, 저는 학생들에게 제가 소스라고 말할 때 제 악센트가 너무 나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파스타 소스나 토마토 소스라고 들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고 있는 건 그게 아니에요. 저는 본문의 출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소스는 SOURCE이고 토마토 소스나 파스타 소스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우리는 출처 비판에 대해 이야기해요.

그게 무슨 뜻일까요? 글썄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언어로 이야기해 봅시다. 출처 비평은 기본적으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설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건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시점과 사건을 쓰는 시점 사이의 시간은 수십 년입니다. 따라서 작가는 일반적으로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출처를 수집해야 합니다

정보를 어디서 얻었을까요? 그들은 누구에게 문의했을까요? 그들은 서면 자료에 접근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구전으로 전했을까요? 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전통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방문할 수 있는 도서관은 무엇일까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출처 비평은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서 연구에서 복음서 간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따라서 출처 비평은 우리가 항상 논쟁하는 복잡한 연습이 됩니다.

그리고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제공하는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마태가 먼저 썼고, 다른 두 복음서는 마태와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이 매우 다르기 때문입니다. 마태에 의존합니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사실 매우, 매우 적습니다.

대부분 학자들은 마가가 먼저 썼고, 마태와 마가가 마태와 누가는 그들의 글을 쓸 때 마가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출처 비판에 관해서는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다음 질문은 마태와 누가에 있는 내용 중 마가에는 없는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입니다. 마태와 누가가 그들의 글을 쓸 때 마가를 사용했다는 주장은 마태와 누가가 서로를 알지 못했다는 주장도 포함합니다.

그렇다면 마태와 누가가 서로를 몰랐다면, 마태와 누가가 공유하는 구절은 220~235개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것을 어디서 얻었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Q 소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기본적인 소개입니다.

Biblical In-Learning에서 해석학을 다루는 다른 강의를 들으면, 학자는 더 많은 것을 풀어내는 데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한 간략하게 이것을 말한 후, 누가복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누가의 출처 자료를 어떻게 볼까요? 이제, 누가의 구성 출처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견해는 우리가 두 출처 가설과 네 출처 가설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Hausmann 가설이라고도 하는 두 출처 가설은 누가가 마가를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그는 마가를 사용한 후 마태도 사용한 다른 출처에서 자료를 가져왔는데, 그것이 기록되었는지 전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는 Q라고 불리는 지속적인 논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다른 곳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루크는 마가복음과 Q에서 자료를 모았습니다. Q는 무엇일까요? Q가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공유했던 전통적인 구전 전통일 수도 있고, 서면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논쟁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은 Q 소스 자료의 대부분이 실제로 예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대한 두 출처 가설은 누가가 마가복음과 Q에 의존했다고 말합니다. 옥스포드 대학의 교수가 개발한 네 출처 가설이라는 두 출처 가설과 비슷한 또 다른 가설이 있습니다. 스트리터의 가설은 누가가 마가복음과 Q에 의존했고, 누가도 L-출처에 의존했다고 말합니다. L-출처는 무엇일까요? L-출처,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마가복음이나 Q로는 설명할 수 없는 누가복음의 모든 자료를 말합니다. 이것을 아주 평범한 언어로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 같은 마을 사람이 설명하려고 해도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누가를 모으는 데 있어서, 누가가 복음서를 쓰기 위해 자신의 자료를 모으는 데 있어서, 그는 마가와 Q라고 불리는 자료에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복음서를 구성하는 데 적용한, 누가 자신의 발견에만 고유한 다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누가의 복음서는 마가와 마태와 많은 공통점을 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를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대해 독특하고 독특한 강조점을 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신약성경을 마태의 관점에서 읽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세요. 제가 말했듯이, 제 학생들을 테스트할 때 너무 자주 테스트합니다. 제가 발견한 일반적인 패턴 중 하나는 그들이 누가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 마태를 사용하려고 하지만, 항상 그 질문을 놓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태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무리 자주 말하더라도, 누가를 생각하세요. 이것은 제가 누가의 출처를 안다면 누가가 특별히 다르게 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을 더 살펴보게 합니다.

하지만 누가가 루카 복음서에서 하는 일은 우리에게 감각을 주는 데도 중요합니다. 만약 누가가 마태와 마가와 공통점을 공유한다면, 누가는 사도행전과도 공통점을 공유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 그는 복음서를 쓴 사람과 같은 사람을 위해 썼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관계를 살펴보면, 먼저 저자와 수신자가 같다는 사실, 수신자가 데오빌이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 2권과 그렇게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실, 이 복음서는 누가의 두 권 중 첫 번째 책입니다 .

누가복음이 끝나는 방식과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방식은 실제로 누가가 이 책들을 제작할 의도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저는 실제로 한 학자의 글을 읽었는데, 그는 파피루스의 길이를 계산할 때 누가복음을 택할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가장 긴 파피루스의 크기와 거의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도행전을 가져다가 사도행전의 길이를 보고, 어떤 종류의 파피루스에 들어갈 수 있는지 보았고, 실제로 가장 긴 파피루스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그가 찾을 수 있는 가장 긴 파피루스, 그가 찾을 수 있는 파피루스로 작업한 것 같습니다. 그는 첫 번째 파피루스를 사용하여 누가복음을 썼고 나중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말이 되죠. 하지만 그걸 따라야 할지 말지 모르겠어요. 루크가 많이 쓴 것 같다는 건 말이 되죠.

루크는 내 친구 중 한 명 같았어요. 그는 큰 책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그는 내가 읽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써요.

우리 중 일부는 테드 존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브리핑을 쓰고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하지만 누가는 같은 메시지가 사도행전에서도 계속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공유된 주제로 이들을 씁니다.

하지만 이 특정 연구에서는 복음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니 공유된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누가와 사도행전의 공유된 주제는 약속과 성취를 포함합니다.

루크는 이야기의 줄거리와 줄거리의 해결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메시아적 예언들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영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말씀하셨던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 이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누가는 이 패턴을 보여주고 사도행전에서 영의 시대는 영으로 표시된 시대라고 계속 말합니다. 사실, 누가는 모든 곳에서 영을 볼 것입니다.

이제, 제가 이 코멘트를 한 후에, 루가 복음을 읽기 시작하고 첫 두 장에서 영이라는 단어에 밑줄을 긋는 것을 알아차리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실 것입니다. 루가에게 영의 시대는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의 시대, 성령의 놀라운 움직임이 사도행전에서 시작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추측해 보세요. 제가 여기서 이야기할 유아가 이야기에서도 영은 움직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례로 나아갑니다. 영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영이 그에게 내려올 때, 신은 이 신성한 증거를 주십니다. 이것은 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이게 내가 선택한 사람이야. 글썄, 대단해. 그를 데려가, 영을, 그를 채찍질해서 유혹을 받게 해.

그리고 그는 회당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이봐,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서, 영이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사도행전에 그것을 옮겨 적는 것처럼, 교회는 어떻게 시작될까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것처럼 시작될 것입니다.

영이 올 것입니다. 루크는 모든 곳에서 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영의 시대는 놀라운 일들을 나타낼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누가는 그의 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와 같이 복음이 과부들이 감동을 받는 지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버림받은 자들이 끌려올 것이다. 엘리트들이 끌려올 것이다.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작업 수집가들은 사회에서 그들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가질 수 있지만 그들 역시 복음에 접근할 것이다.

사실, 사회의 핵심 인물들은 실제로 행복할 것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도행전에서도 정치인들이 행복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조차도,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우리를 설득하려고 합니까? 복음은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에서처럼 그의 복음서에서 복음이 모든 사람과 모든 민족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추방자가 귀신 들린 여자를 포함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사실, 내가 누가에서 발견한 놀라운 것 중 하나는 때때로 의사에게 모든 돈을 썼고 의식적으로 더럽고, 고군분투하고 절박한 상황에서 그녀가 몰래 들어가 예수님을 만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버림받은, 소외된 여인조차도 이 새로운 왕국에서 일어나는 일에서 자신의 몫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루가 복음에서 발견되는 추가 주제는 하나님의 영과 교회에 의해 표시된 취임과 같은 주제입니다. 사역의 시작은 영의 능력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영은 은사와 예언적 활동과 함께 온다. 우리는 제2성전 유대교에서 복음에서 매우 특이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성전에서 메시아에 대해 예언하는 것을 볼 것이다. 외부인에 대한 강조가 있고, 사람들은 온갖 종류의 영적 만남을 갖는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우리가 메시아가 하나님의 세상에서 일할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는 새로운 시대에 살고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로저 스트롱스타드 는 그의 저서 *누가의 카리스마적 신학* 에서 누가가 명확히 밝힌 한, 누가의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카리스마적 은사는 항상 경험적 현상이라고 썼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예수, 오순절의 제자들, 고넬료의 집안, 에베소의 제자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성령은 모든 곳에서 모든 곳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해받지 않도록, 만약 당신이 카리스마적이고 오순절주의자라면, 저는 당신의 신학을 지지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이 루크가 전개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패턴을 따르려면, 루크에서 일어나는 일을 주의 깊게 따라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카리스마가 아니고 오순절교도가 아니며 누가복음을 공부하는 데 열려 있다면, 누가복음의 더 광범위하고 전체적인 신학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누가복음은 현대 카리스마, 현대 장로교, 현대 침례교, 심지어 저와 같은 현대 침례교를 대표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은 테오피로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시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예언적으로 성취되고 이 사역이 어떻게 계속되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누가는 누가답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학적 예술성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누가가 사물을 설명하는 데 매우, 매우 조심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행전과 유사한 점이 많지만, 그리스어 본문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사이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그것을 썼는지 아닌지에 대한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풀에 있을 때 그것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사실 말씀드리자면, 저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제 컴퓨터 화면에서 저는 두 가지 글쓰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하나와 매우 다르고 글쓰기 스타일도 바뀝니다. 루칸 부부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같은 사람이 썼는지 아닌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만, 그것은 관찰입니다. 누가는 저자가 사도행전에서 예수의 시대와 사역과 기독교적 기원을 구분하는 단일 권의 첫 번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4장에서 보다시피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도착하면, 44절에서 53절까지, 누가는 제자들이 약속을 기다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시작 부분에서 그는 약속이 성취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루칸 부부의 구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간단한 관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구약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살펴보면,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이 구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그는 기독교 기원을 제2 성전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제시합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어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루크가 행동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제가 미국에 있든 아프리카에 있든, 저는 같은 질문을 받기 때문입니다. 학생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일부였다는 뜻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고 싶어합니다. 글썄요, 그렇습니다. 루크가 초기 기독교에 대해 설명한 내용에서 기독교는 유대교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인의 메시지는 유대 전통에서 메시아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메시지입니다. 기독교는 유대교를 대체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의 신학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유대교가 죽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예수는 유대인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영으로 이 예언들을 성취하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새로운 왕국을 인도합니다. 새로운 왕국의 아름다움은 그 범위가 얼마나 광대한가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배경,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받는 질문을 가정하고, 이 질문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해 보겠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유대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유대교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기독교의 기원이 제2성전 유대교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2성전 유대교 내에서 운동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1세기 말까지도 기독교인과 유대인이라는 별개의 종교 운동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대교에 속한 길들인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 몇 강의에서 제가 강조할 많은 것들이 말이 될 것입니다.

누가에게 구약성경이나 유대교 경전은 전개되는 사건의 맥락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서 행하시는 일을

해석할 수 있는 프리즘을 제공합니다. 종종 유아기 이야기라고 불리는 처음 두 장에 도달하면, 우리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 예수의 부모뿐만 아니라 성전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기대하는 것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구약성경이 반복하는 많은 암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동료 기독교인 여러분, 그리고 이 강의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제가 호소드립니다. 제발, 유대인을 미워하게 만드는 신학은 최대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유대인으로 세상에 데려오심으로써 인간 역사에 발을 들여놓으신 것입니다.

누가는 이것이 예언의 성취임을 상기시켜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항상 그의 백성에게 하려고 의도하셨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유대인을 미워하고 우리가 유대인을 계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누가 주장하는 것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루가 복음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의 유대적 기초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통해 일하시며 우리와 같은 외부인에게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될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유대인 예언을 성취하시는 일에 참여했을 때, 이방인들이 오히려 그 운동을 납치하고 할 수만 있다면 유대인들을 한데 모으는 방법을 찾았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심해야 합니다. 루가는 그의 글에서 우리가 이러한 유대인적 개념과 이러한 유대인적 경전을 이해하고 엮어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이것은 이방인이 이방인에게 쓴 편지로, 유대교를 통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서사 기법을 꺼냅니다. 사실, 누가를 보면 그가 서사를 구성하는 방식에 능숙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만큼 명백합니다.

그는 당시에 흔했던 요약 기법을 서사적 글쓰기에 사용합니다. 그는 연설을 사용합니다. 그는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 중간에 잠깐 멈춰서서 말하죠.

제 이야기 중간에 실제로 한 번에 한 연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일부로 그 연설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렇게 하면서, 그는 그 사람을 바꿉니다.

그는 톤을 바꾸고, 인물을 바꾸고, 대부분의 고대 텍스트가 읽히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라 들리기 위해 쓰여졌다는 것을 알고 청중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텍스트를 읽는 것을 듣는 사람들은 담론 속에서 여러 목소리를 거의 들을 수 있고 전달되는 메시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는 요약과 연설을 서사적 장치로 가져옵니다. 그는 여행을 가져옵니다

그는 매우 잘 계획을 짜고 그의 계획을 해결합니다. 예를 들어, 루가 복음서에서, 당신은 그가 갈릴리에서 몇 가지를 위치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그는 글을 쓰고, 여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예수님이 여러 곳에서 여러 곳으로 여행하고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 그는 때때로 사마리아 지역으로 갑니다. 때때로 그는 요르단 강을 동쪽으로 건너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끝까지 내려와서 예루살렘에서 끝납니다. 훌륭한 줄거리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밖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끝으로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힙니다. 여행은 누가가 사용하는 장치의 일부입니다.

그는 또한 평행선이나 평행론을 사용합니다. 다음 몇 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유아기 서사에서 그는 예수와 세례자 요한 사이의 평행선을 끄습니다. 사도행전에서 그는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여 평행선을 만듭니다.

때때로 그는 자신이 기록하기로 선택한 기적적인 사건들과 유사점과 평행점을 보여줍니다. 루크는 청중이 매우 몰입할 수 있도록 자신이 말하거나 쓴 것과 비슷한 것들을 기억하도록 마음을 돕는 데 능숙합니다. 여기서 평행점의 관점에서 저는 제 좋은 친구인 크레이그 키너로부터 얻은 자료 중 일부를 빌릴 것입니다.

이건 키너의 자료, 저작권이에요. 키너는 저작권이라고 말하지 않겠지만, 크레이그의 작품이에요. 크레이그는 누가의 행전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유사점에 대해 몇 가지 관찰을 했습니다.

예수께서 기름부음을 받으신 곳에는 기름부음을 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이 있습니다. 바울의 표적이 있습니다.

예수에 대한 재판이 세 번 있는데, 두 번은 총독 앞에서, 한 번은 전령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바울에 대한 재판이 세 번 있는데, 두 번은 총독 앞에서, 한 번은 전령 앞에서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마지막 말씀,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긴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영을 받으소서. 그는 이 모든 유사점을 만듭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에도 발견하셨죠. 루크가 뇌를 움직이게 하는 데 사용한 모든 유사점을 발견하실 겁니다. 저는 전에 비슷한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연결을 하고, 예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프리카 교회라면, 예, 목사님, 아멘이라고 말했습니다. 루가 복음의 장르에 관해서는, 복음이라는 장르가 없다는 것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에서 에반게리온이라는 단어는, 그냥 에반게리온은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장르 를 살펴보면 , 그것은 서사에서 비유에 이르기까지, 때로는 시에 이르기까지, 텍스트에서 진행되는 연설과 같은 모든 종류의 것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많은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글을 썼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부 학자들을 계속 이끌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꽤 오랫동안 출판하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논쟁은 두 가지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전기를 쓰고 있는지, 아니면 서사를 쓰고 있는지입니다. 만약 누가 전기를 쓰고 있다면, 어느 정도 강조점이 생깁니다.

그가 역사를 서사로 쓰고 있다면,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글썬요, 저는 여러분에게 소식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미국에 있는 마을은 아니고,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아프리카의 한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1학년부터 10학년까지 제 마을에는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신에게 감각을 줄 겁니다. 그 주장들 중 일부는 제 아프리카 뇌-마음에는 너무 복잡해요. 알았어요.

제 아프리카 스토리텔링과 여러분의 전통적인 스토리텔링에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에도 같은 이야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어떤 전기적 요소가 있더라도 그것이 이야기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렇게 복잡한 일일까요? 글썬요, 알다시피, 그것은 이야기입니다. 학자가 발전한 문화가 추론과 논증에 대한 우리의 프리즘을 형성하기 때문에 복잡해집니다. 전통적인 서구 세계에서 스토리텔링은 일반적으로 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문화나 일부 아시아 문화와 달리,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앉혀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시곤 했습니다. 할머니는 학교에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나에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사건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곤 했습니다. 할머니가 다리가 건설되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때가 생생히 기억납니다.

그녀는 그 다리를 영국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나라의 일부를 인수하려고 했던 때와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녀는 돌아와서 사실 그 지역에 특정 공장, 즉 섬유 공장이 지어진 것과 거의 같은 시기였다고 말했습니다. 오, 할머니가 이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동안, 나중에 저는 해석의 원칙에 따라 할머니가 실제로 저에게 날짜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고, 내가 날짜를 비교하기 위해 돌아갔을 때, 그들은 모두 정확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스토리텔링 사회입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야기와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나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르치고 싶을 때, 그녀는 우리 가족 역사에서 알려진 핵심 인물 4~5명을 줄 수 있는데, 그들은 내가 하려는 일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려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일까? 그리고 어린 소년으로서, 나는 그것을 이해한다. 그것은 우리 가족 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는 멈춘다. 그것은 문화가 작동하는 방식일 뿐이다. 나는 서양의 문화를 좋아한다. 서양에서는 많은 것들이 기록되어 있어서 평가할 수 있다.

생년월일과 그 모든 것, 제가 자란 곳의 생년월일, 태어난 곳을 안다면 운이 좋은 겁니다. 언제 태어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산원이 아니고 병원도 아니니까요.

우리는 그것들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요? 루크의 세계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서양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개념화하고 루크가 서사 기법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가 역사를 전기로 썼는지 서사로 썼는지는 정당한 질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텍스트를 제 할머니가 제게 말했을 방식으로 더 광범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전기적 요소가 있는 서사로 보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말하고자 합니다.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제가 화면에 보여줄 때 크레이그 키너와 그의 관찰이 약간 도움이 될 것입니다. 키너는 우리가 현대 전기와 고대 전기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장르를 확장하려고 할 때, 알다시피, 전기나 서사라면, 우리는 이 주제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루크가 하는 일을 어떤 전기적 요소가 있는 서사로서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전기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루가 복음서 전체가 예수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심지어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서 첫 몇 장은 베드로에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바울에 초점을 맞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신의 전기적 주장 전체를 거기에 둘 수 있습니다.

너무 멀리까지 확장할 가치가 있을까요? 글썄요, 제가 크레이그 키너가 제안한 것을 따른다면, 전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넓게 생각해보시기를 제안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루크가 서사를 구성하고 서사 안에 인물을 넣어 이야기를 더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기는 특정 범위와 길이에 맞고 특정 방식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텍스트의 경우, 우리는 종교적 텍스트를 다루고 있습니다. 종교적 텍스트는 개인에 대해서만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고, 종교적 경험과 함께 마주치는 종교적 서사 속 인물에 대해 이야기하여 그 특정 경험이 그 특정 종교의 다른 신자들에게 전달해야 할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렇죠, 우리는 전기와 그 모든 것을 공부할 수 있지만, 저는 서사에 집중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루카 복음을 읽는 선호 방법으로 역사적 서사를 살펴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역사적 서사를 사용한다면, 루카가 특정 목적을 가진 작가로서 글을 쓰고 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마음속에 목표를 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할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과 목격자 진술을 참고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를 살펴볼 것입니다. 내레이터는 항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레이터에 대한 또 다른 문제는 고대이든 현재이든 선택성 문제입니다. 나레이터는 자신이 듣는 모든 것을 실제로 전달해야 한다는 특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아니요, 누가는 질서 있는 설명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자신의 자료를 더 명확하게 제시하기 위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데이터 부분을 선택합니다. 누가와 서사의 경우,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이해로 글을 쓰고 하나님의 왕국의 이야기를 전하는 그리스도 추종자의 모자를 써야 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인류 역사에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에서 어떻게 수행될 것인지를 말합니다. 누가는 예수와 초기 기독교 운동의 역사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말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루카가 하는 일로 광범위하게 이해한다면, 서사가 현대적 사상이나 서사에 대한 현대적 추론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조금이라도 알고

있어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 다음, 이야기를 읽으면서 어떤 서사가 완벽하게 들어맞는지 알게 되는데, 모든 서사가 이 여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작업을 완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서사에는 목적이 있고, 루크의 목적은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의 메시지를 전진시키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방식을 이끈다. 서사에는 장면이 있다. 알다시피, 루크는 때때로 누군가의 집에서 장면을 설정하곤 한다.

때로는 그 장면이 회당에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가 설교하는 들판에 있습니다. 루크는 모든 서사가 그렇듯이 등장인물을 등장시키고, 등장인물이 등장할 때 마치 전기적 자료가 된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서사에는 캐릭터가 있습니다. 캐릭터는 이름이 붙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름이 붙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캐릭터는 움직이고, 사건은 캐릭터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서사에는 대화가 포함됩니다.

때때로, 당신은 예수가 사람들과 교류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언가를 말하고 예수가 응답합니다. 누가 그 대화를 서사에서 다루면서, 독자나 듣는 사람은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에 대한 생생한 상상력을 갖게 됩니다. 줄거리와 줄거리 해결은 모든 서사의 일부이며, 누가는 그의 복음서에서 이 장치를 사용하는 방식을 잘 수행합니다.

우리는 구조의 특징, 사건의 타이밍, 그가 여기에서 여기로 이동하는 방식, 그리고 사물이 만나는 시점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이야기할 타이밍 문제에 대한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누군가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설교를 전하고, 오, 제발, 제 집에 와서 상황을 도울 수 있나요? 제 집에 누군가가 아프다고 말하고, 바로 그 무렵 누군가가 예수님을 가로채서 막고, 예수님은 그 사람을 돕고, 마치 시간을

낭비한 것처럼 보입니다. 누군가는 그 쪽에서 화를 내야 하지만, 오, 예수님, 아니요, 아니요, 문제없어요.

다 잘 되고 있어요. 타이밍이 맞아요. 루크가 타이밍을 맞춥니다.

그는 이 모든 특징과 구조로 작업하여 어떤 곳에서는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올까요? 무엇이 올까요? 어떤 우화에서는 어떻게 전개될지 확신할 수 없지만, 갑자기 특정한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누가는 이런 서사를 다루는 방식이 완벽합니다.

다시 말해, 루크의 서사와 역사성에 대해 생각할 때, 아크트마이어와 그린, 톰슨은 글을 쓸 때 이를 포착하는 듯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은 과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떤 방법을 사용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을 회복할 수 있는지가 아닙니다. 역사학은 기록하고 정리할 사건을 선택하고, 그러한 사건에 종말이나 기원을 가정하려는 고유한 노력을 통해 과거에 중요성을 부여합니다.

누가복음에 대해 생각할 때, 이런 관점에서 누가복음의 서론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의사가 썼습니다. 그는 테오피로스라는 귀족이나 엘리트에게 이 복음을 썼습니다.

복음서를 쓰면서 그는 예수가 무엇을 하기 위해 왔는지, 그리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하지만 그는 그 사건을 제2성전 유대교에 두고, 특정한 세계관, 즉 영과 악마, 천사가 모두 함께 일하는 세계관 안에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는 훌륭한 작곡가로서 가진 기술 세트로 이야기를 들려주고, 이야기를 들려주는 데 사용하는 출처에 기반한 서사 기법으로 이야기를 씁니다.

그는 자신이 기록된 기록과 목격자 기록에서 인용했다고 주장하거나 말하며, 또한 자료를 체계적인 기록으로 제시하기 위해 자신의 연구를 합니다. 누가 복음의 전반적인 서론은 이런 형태의 일련의 강의로는 잘 그리고 철저하게 포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공한 작은 내용이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제2 성전

유대교에 뿌리를 둔 기독교의 기원을 살펴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하도록 준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우리 세상에 올 것입니다. 그는 나사렛의 매우 겸손한 집에서 한 처녀와 한 처녀 사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구세주로 일어날 것이고,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통에 참여하는 두 핵심 인물, 두 대화자는 이방인 두 명입니다. 한 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자 상당히 교육받은 루크입니다. 다른 한 명은 테오피로로, 경으로 불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되는 메시지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모든 곳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입니다. 루카 복음은 흥미로운 복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톨릭 신자라면, 루카 복음이 현 교황이 가장 좋아하는 복음이라는 사실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교황은 루카 복음이 개인에게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라고 도전하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 교황에게 좋은 일이라면 당신에게도 좋은 일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개신교도일 수도 있습니다.

루카 복음을 읽으며 당신의 크리스마스 찬송가의 메아리가 모두 이 복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우화는 모두 이 복음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내가 전례적이지 않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왜 당신은 나에게 이 모든 크리스마스 구유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야? 나는 카리스마적인 오순절교도야. 나는 그렇다고 했어. 루가가 그 복음이야.

그것은 우리 세상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역사를 사건의 시작에 둡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을 나사렛의 회당에서 대담한 선언문을 만들 지점으로 이끕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했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선언문의 개요가 주어졌습니다. 당신이 카리스마적이라면, 그것이 당신을 위한 복음입니다.

오, 하지만 누가 빠졌나요? 아무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고, 만약 당신이 기독교인이라면, 누가만이 예수의 사건에서 사도행전에서 초기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는지에 대한 일관된 설명과 전환을 제공한다는 것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시리즈에서 우리와 함께 루가 복음을 공부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고 사도행전을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줍니다. 여러분이 이 Biblica e-learning 시리즈에서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배우고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 Biblica e-learning 시리즈에서 배운 것 중 일부를 가르치도록 격려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루가 복음의 본문을 열고 루가 복음을 훑어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 흥분합니다. 그것이 제가 있고 싶은 곳입니다.

저는 시험을 치르고 텍스트를 살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또한 여러분에게 배경을 알려드려서 우리가 같은 틀에서 그것을 살펴보고, 루크의 사고방식을 포착하고, 그가 관여하는 글에 대한 그의 접근 방식을 이해하여 그가 우리와 공유하고자 하는 것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리즈의 두 번째 강의에 참여하고 따라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머지 강의에서도 유익하고 풍부한 학습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루가 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댄 다코 박사입니다. 이것은 세션 2, 서론, 2부, 루가의 문학적 예술입니다.